

아세안(ASEAN)의 사료곡물 수급 개황

국민소득이 향상함에 따라 식육 소비는 증가하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식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식육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필요량을 국내에서 생산할지 또는 수입할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인 식육 판매 형태는 냉장고를 사용 하지 않는 젯 마켓(wet market)에서 취급하는 것이 주였기 때문에, 아세안에서는 싱가포르 등 일부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를 제외하고, 사료 원료의 증산 또는 수입 증가에 따라 식육 생산 증가를 도모하여 국내 수요를 채워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 발전이 예상되는 아세안 중에서 아세안 전체의 가금 및 돼지의 90% 전후를 사육하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의 사료 사정을 밝히고, 해당 지역에 있어서 식육 생산 배경을 사료 원료 수급 관점에서 개관하고자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에 대해서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사육되는 것이 많고, 먹이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 부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교적 수치 파악이 되는 사료 공업에 제공되는 사료 원료를 중심으로 기술코자 한다.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상기 5개국 합계를 수치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각종 생산량의 국별 비교 등, 수치를 통일적으로 취급하는 관점에서, FAO가 공표하고 있는 수치를 사용하였다.

1. 아세안의 경제성장률

아세안 10개 각국은 국토 면적, 인구, 언어나 문화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지역 전체로는 세계 중에서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행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을 제외한 4개국은 97년에 시작한 아시아 경제위기 영향으로 1997년과 98년에 국내 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부진을 경험했지만, 그 후 회복국면으로 2003년의 GDP 신장율은 4%대에서 7%대가 되었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 몇 년 7% 전후를 유지하여, 경제 성장이 현저하다.

표 1 아세안의 가금과 돼지의 사육수, 2003년

단위: 천수, 천두

	가금	돼지
부루나이	11,542	1
캄보디아	23,014	2,150
인도네시아	1,238,173	6,345
라오스	22,174	1,650
말레이시아	102,396	2,052
미얀마	64,802	4,840
필리핀	138,849	12,364
싱가폴	2,800	-
태국	276,779	7,059
베트남	247,010	24,819
계	2,127,339	61,340
5개국 계	2,003,297	52,699
5개국 비율	94%	86%

자료: FAOSTAT, 정부통계

그림 1 5개국의 GDP의 신장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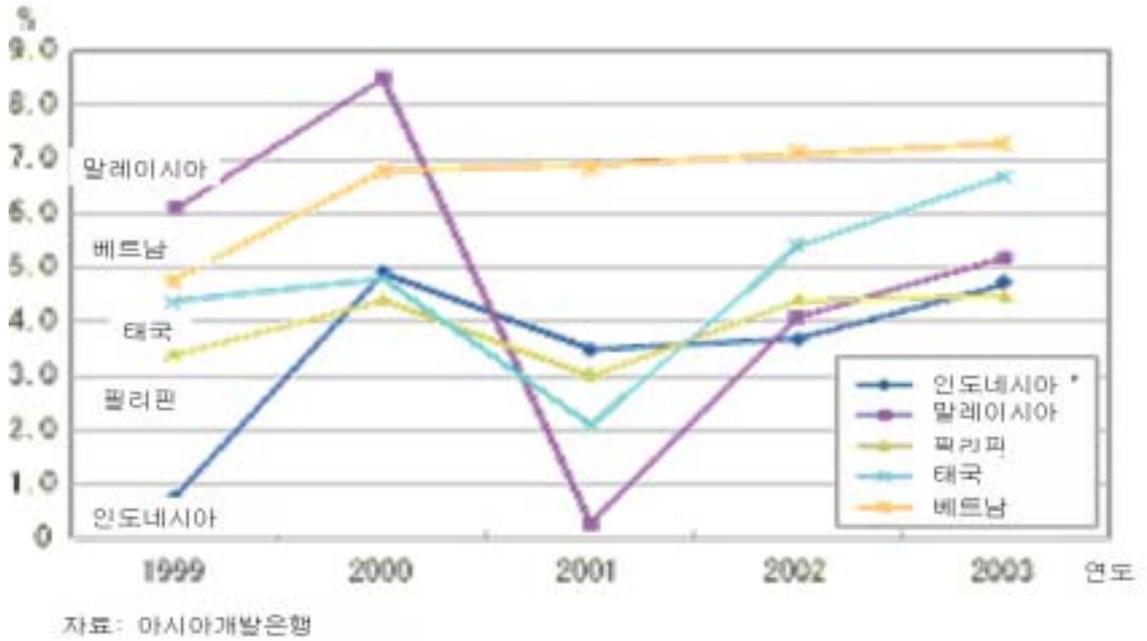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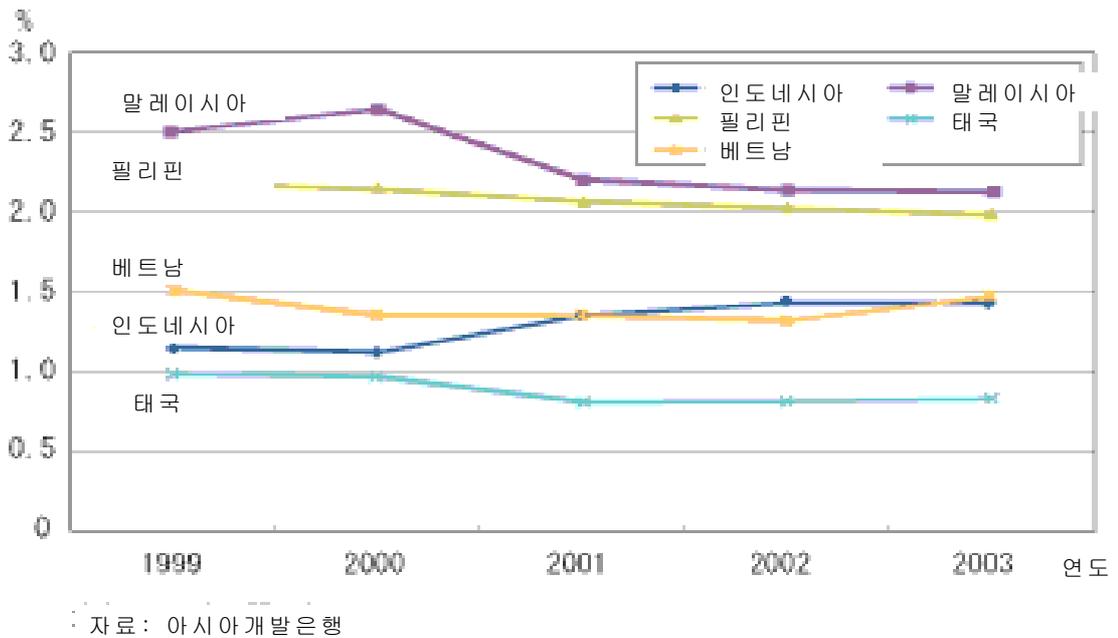


그림 2 5개국의 인구증가율



한편, 인구 신장에 관해서는, 최근 0.8~2.1% 정도이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2%이상으로 높으며, 특히 필리핀은 국민의 다수가 카톨릭교도이기 때문에, 인구 억제적인 정책은 채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도 인구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경제 및 인구 증가가 안정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식육 소비 확대 요인이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식육수급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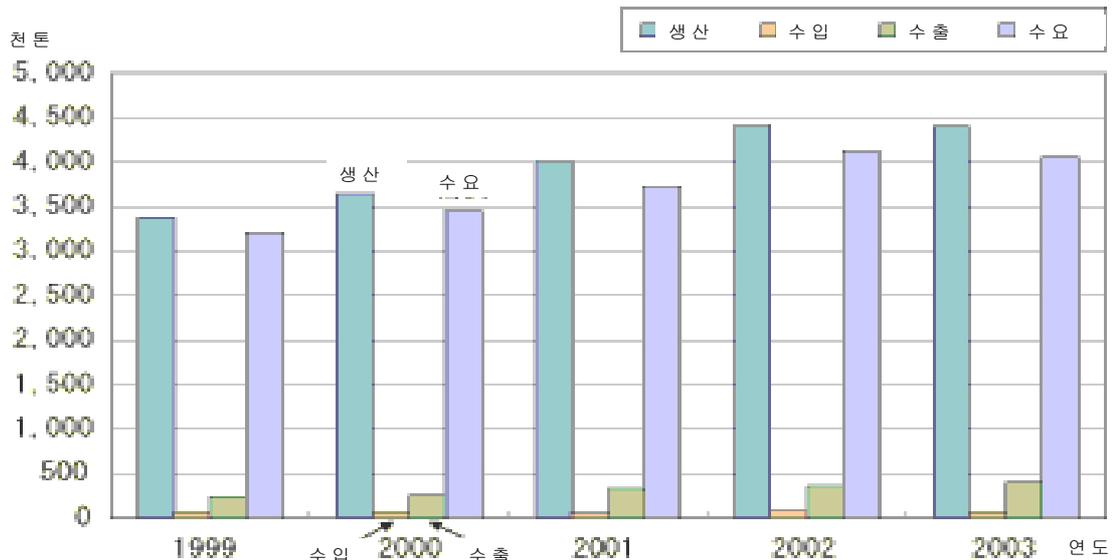
아세안 지역에서는 다양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금육 및 돼지고기의 수요가 높다. 이들 가축은 사료공업에서 나온 사료(이하 '유통사료'라고 한다.)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사료 소비가 많은 가금육과 돼지고기의 수급 상황을 보기로 한다.

가금의 경우, 닭의 브로일러, 채란계나 오리 등에서 볼 수 있는 일부 기업적 경영에서는 유통 사료가 사용되고 있지만, 뒤뜰 사육에서는 유통사료 급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돼지의 경우에도 일부 뒤뜰 사육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 생각지 못했던 지출에 대비하여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 경우는 비교적 유통 사료의 급여가 많다고 한다.

2.1. 가금육 : 태국의 수출이 돌출

<표 1> 가금수수의 92%는 브로일러 등 닭이며,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2003년 가금육 생산량은 약 440만톤이며,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많다. 수입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에서는 브로일러 산업이 발전하고, 수출량이 돌출되어 있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00만톤대를 넘었다. 국내생산이 수요량을 커버하는 자급적 수급구조라 할 수 있다.

그림 3 주요 5개국의 가금육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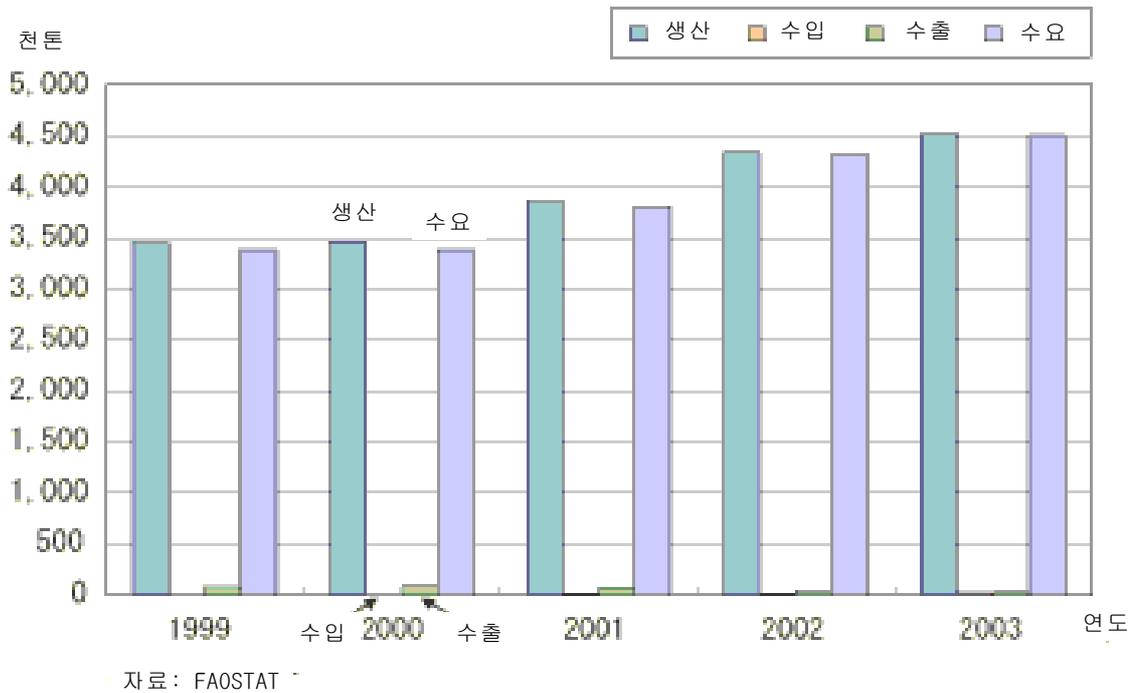
자료 : FAOSTAT

2.2. 돼지고기 : 각국 모두 자급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베트남의 생산 성장이 크다. 99년에는 약 350만톤 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100만톤 정도 증가해 450만톤 대이다. 한편 수입량 및 수출량도 수요량이나 생산량에 비해 미미하다. 각국 모두 거의 자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식육 소비의 중심이 되는 가금육과 돼지고기에 있어서, 자급적인 수급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콜드체인 미발달로 식육유통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생체로 수송되어, 소비지 또는 그 근교에서 도축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국내 식육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직접 식육을 수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식육 생산을 위한 사료 원료를 생산 또는 수입함으로써 국내에서 가축을 사육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주요 5개국의 돼지고기 수요



3. 사료원료 개황

사료 원료는 옥수수 등의 곡물이나 유량 종자의 찌꺼기 등 부산물, 동물성 어분이나 골분, 첨가물인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수량적으로 대종을 차지하는 옥수수, 대두 및 대두밀, 파쇄미 등의 수급을 보기로 한다.

참고로 태국의 사료생산자협회가 종합한 2005년 태국의 유통사료 추정 생산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주요 사료 원료로, 수량의 큰 순서대로, 옥수수, 대두밀, 파쇄(미국)미 그리고 어분이다.

표 2 2005년 사료 원료 사용 추정치(태국)

종류	총수수 (백만)	사료사용량 (톤)	옥수수		대두밀		파쇄미		어분		기타	
			%	수량(톤)	%	수량(톤)	%	수량(톤)	%	수량(톤)	%	수량(톤)
부로일라	730	3,051,400	62	1,89,1868	30	915,420	0	-	3	91,642	5	152,570
중계(브로일라)	9.3	418,500	60	251,000	25	104,625	0	-	3	12,555	12	60,220
산란계(산란전)	32	693,333	60	416,000	25	173,333	0	-	3	20,800	12	83,200
산란계(성계)	38	1,440,000	55	792,000	25	380,000	0	-	5	72,000	15	216,000
중계(산란전)	0.4	18,000	50	10,800	25	4,500	0	-	3	540	12	2,100
돼지	12	3,540,000	25	885,000	20	700,000	20	708,000	3	106,200	32	1,132,800
중돈	0.8	744,000	0	-	20	148,800	45	334,800	5	37,200	30	223,200
육용오리	18	151,200	15	22,680	20	30,240	35	52,920	6	9,072	24	36,288
종오리	0.2	13,140	10	1,314	30	3,942	45	5,013	6	700	9	1,163
산란오리	1	65,000	6	-	15	9,750	40	26,000	8	5,200	37	24,050
기타	-	1,501,050	-	184,658	-	263,553	-	0	-	107,600	50	865,240
합계	합계	11,635,623	-	4,455,420	-	272,2182	-	1,127,633	-	543,497	-	2,765,910

자료: 태국사료생산자협회

*옥수수와 파쇄미는 대응가능한 것임.

3.1. 옥수수

수확 면적의 과거 5년간 추이를 보면, 감소에서 증가로 변하고 있다. 베트남은 일관된 증가 경향이다. 99년의 생산량은 2,000만톤 미만이었지만, 2003년에는 2,200만톤 대가 되었다. 수입량도 증감이 있지만, 최근에는 400만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수출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도에 따라 증감이 있다. 말레이시아도 수출을 하고 있지만, 생산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볼 수 있다. 국내수요는 연도에 따라 증감하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 주요 5개국의 옥수수 수확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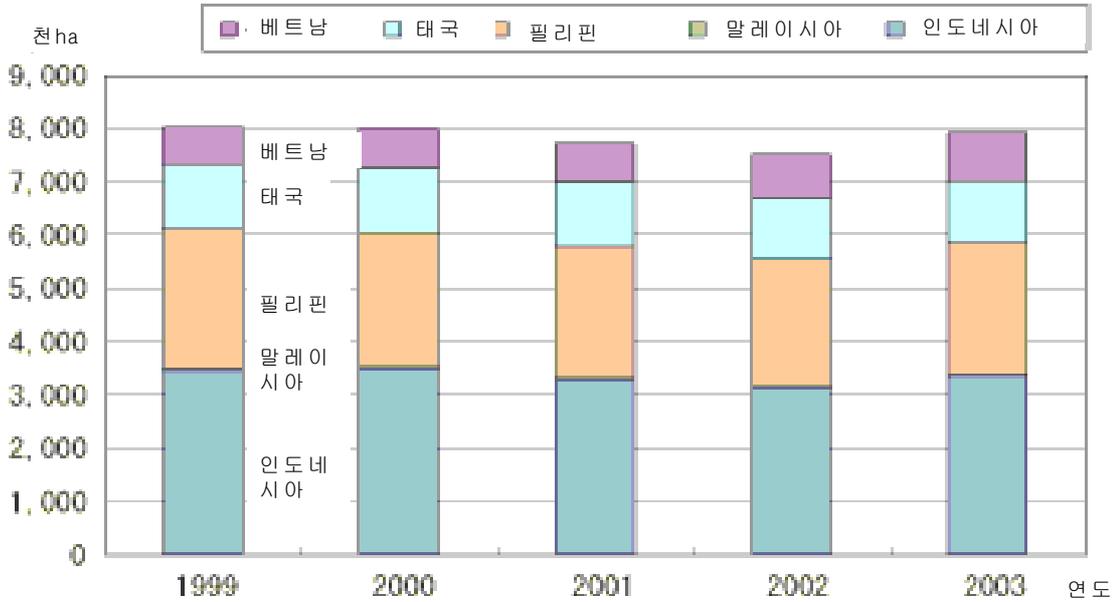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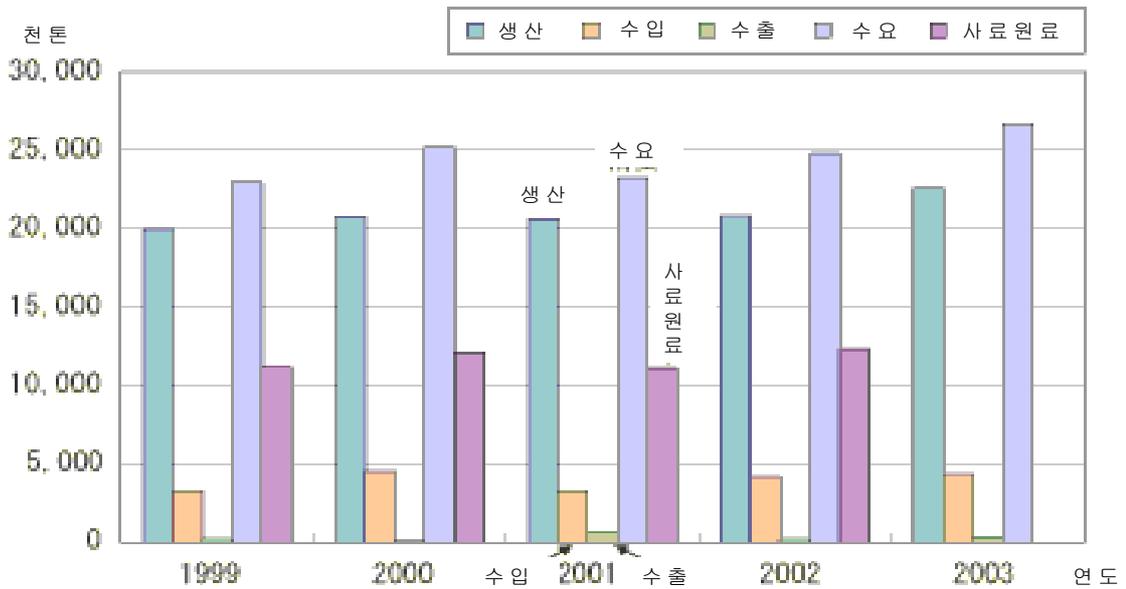


그림 6 주요 5개국의 옥수수 수요



자료 : FAOSTAT

3.2. 대두 및 대두밀

대두 자체를 직접 사료로 하는 경우는 적지만, 대두밀이 사료 원료가 되기 때문에, 대두의 수급 상황도 표시하였다.

3.2.1. 대두

수확 면적은 감소 경향이고, 2003년은 약 90만 ha 정도이다.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감소경향으로 약 110만톤으로 낮아져,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증가 경향으로, 2003년은 380만톤 대이다. 수출은 거의 없으며, 수요는 거의 5백만톤에 가까운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8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 7 주요 5개국의 대두 수확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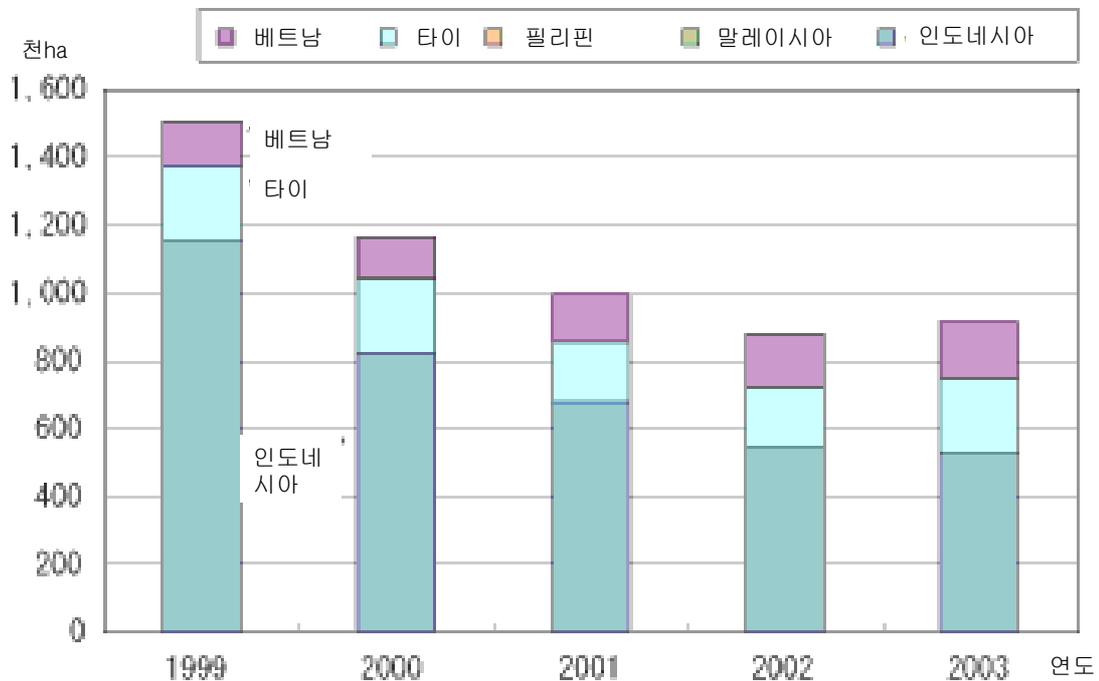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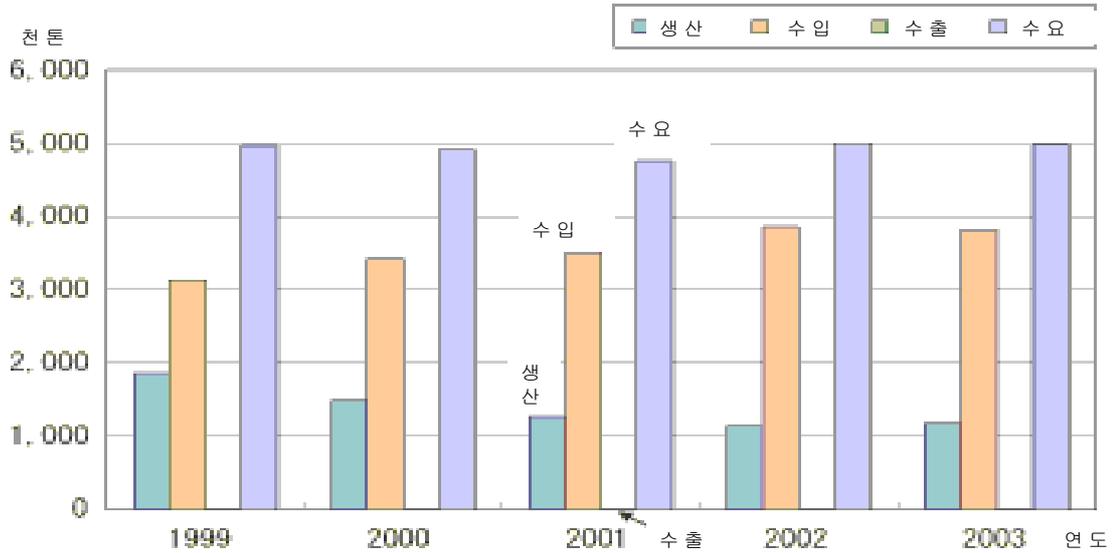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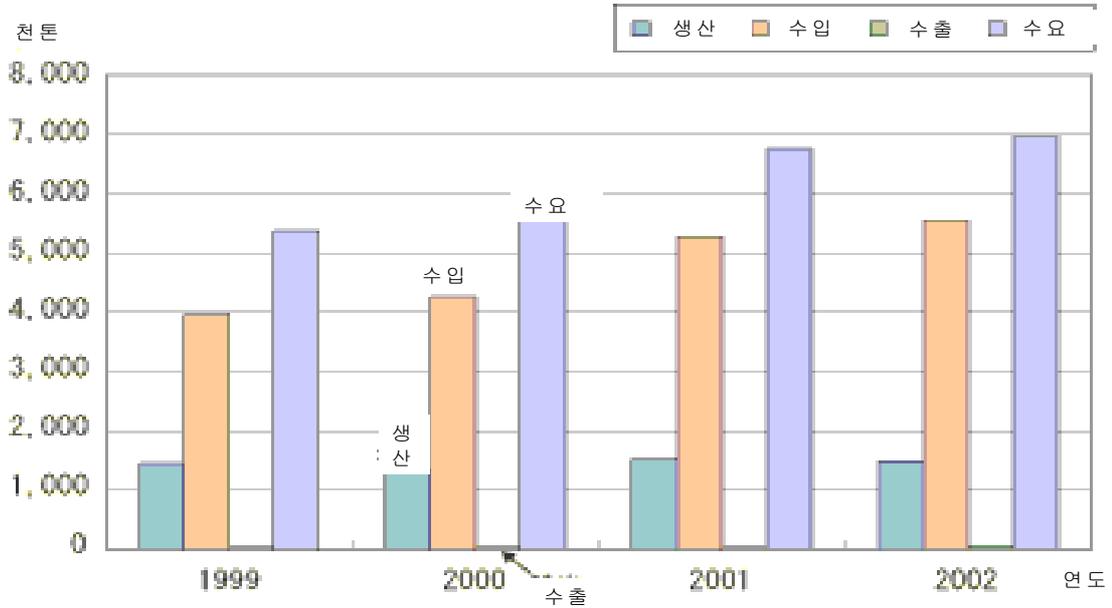


그림 8 주요 5개국의 대두 수요



자료 : FAOSTAT

그림 9 주요 5개국의 대두밀 수요



자료 : FAOSTAT

3.2.2. 대두밀

2002년까지의 생산은 130~150만톤이며, 연도에 따라 증감이 있다. 수입은 증가 경향인데, 특히 태국과 베트남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은 말레이시아 외에는 그다지 없다. 국내 수요는 증가하며, 2002년에는 700만톤에 가깝다.

3.3. 쌀 및 파쇄미 등

쌀의 대부분은 인간의 식량으로 소비되지만, 일부 파쇄미는 사료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정미 단계에서 대량의 파쇄미가 부산물로서 생산되어(일반적으로는 전체 쌀 중량의 15%상당이라 보고 있다.), 착유 한 뒤 또는 그대로 사료로 제공된다. 지역 내에서 맥류 생산은 거의 없으며, 맥류의 부스러기 등에 대해서는, 수입되거나 또는 수입된 맥류에서 생산된다.

3.3.1. 쌀

쌀의 수확 면적은 3,400만 ha 전후이며,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고, 2003년에는 1억 3,000만톤 정도이다. 품종개량이나 관개설비 보급 등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연도에 따라 증감하며, 2003년에는 약 280만톤 정도이다.

수출은 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1,222만톤이다. 국내수요는 연도에 따라 증감하지만, 1억 1,000만톤 전후로 추이하고 있었다. 2003년에는 태국과 베트남의 수요가 증가하여, 1억 2,000만톤이었다. 사료 수요는 국내 수요의 6%인 700만톤 전후이며, 2002년에는 740만톤이었다.

그림 10 주요 5개국의 쌀 수확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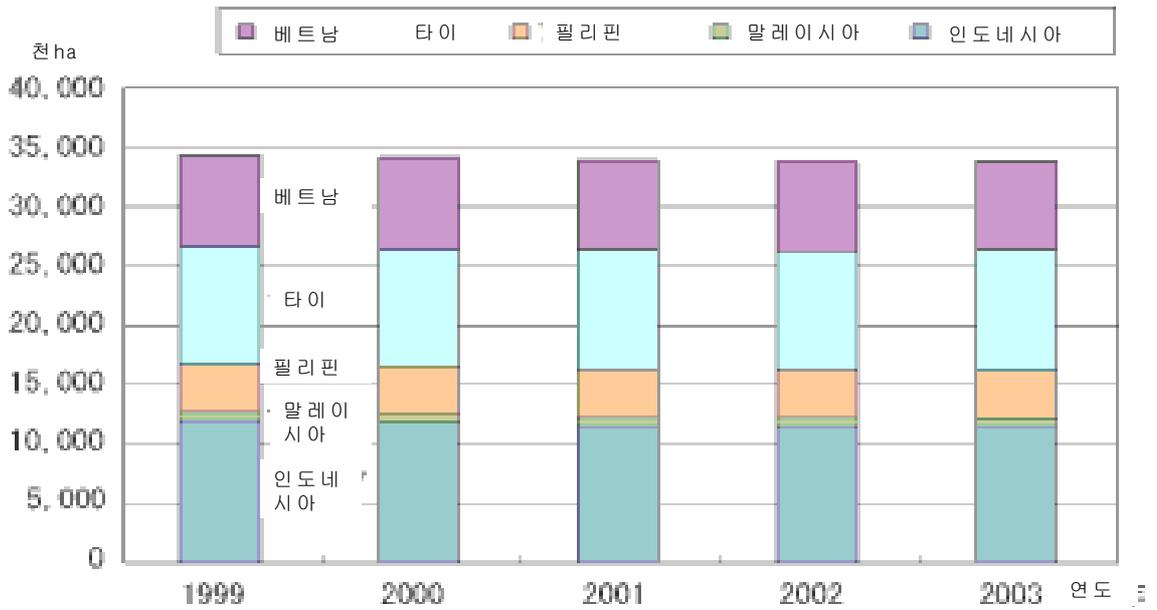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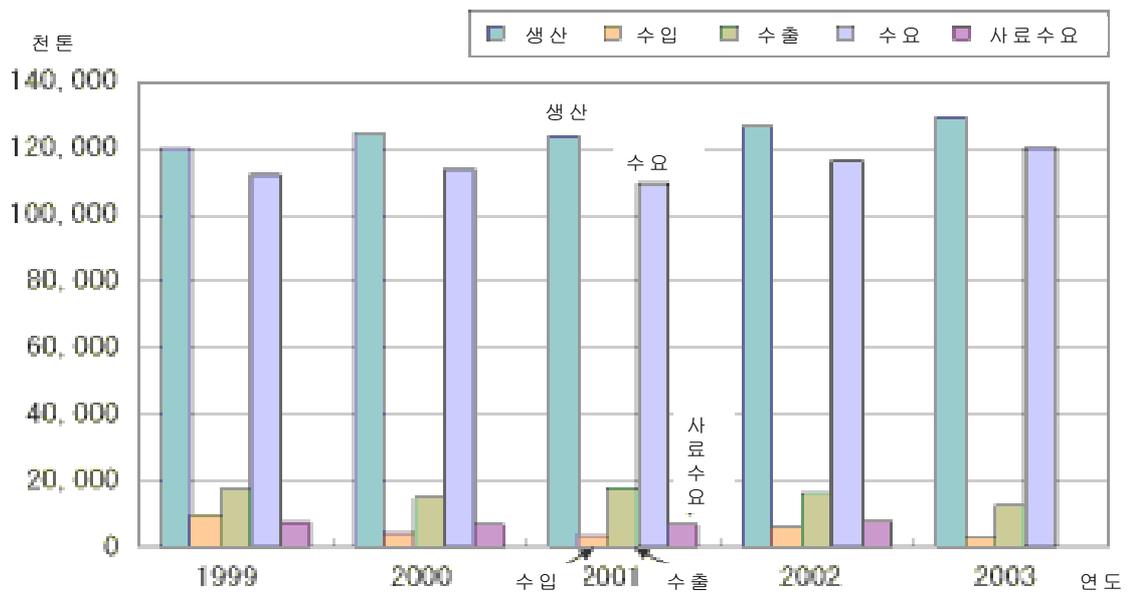


그림 11 주요 5개국의 쌀 수요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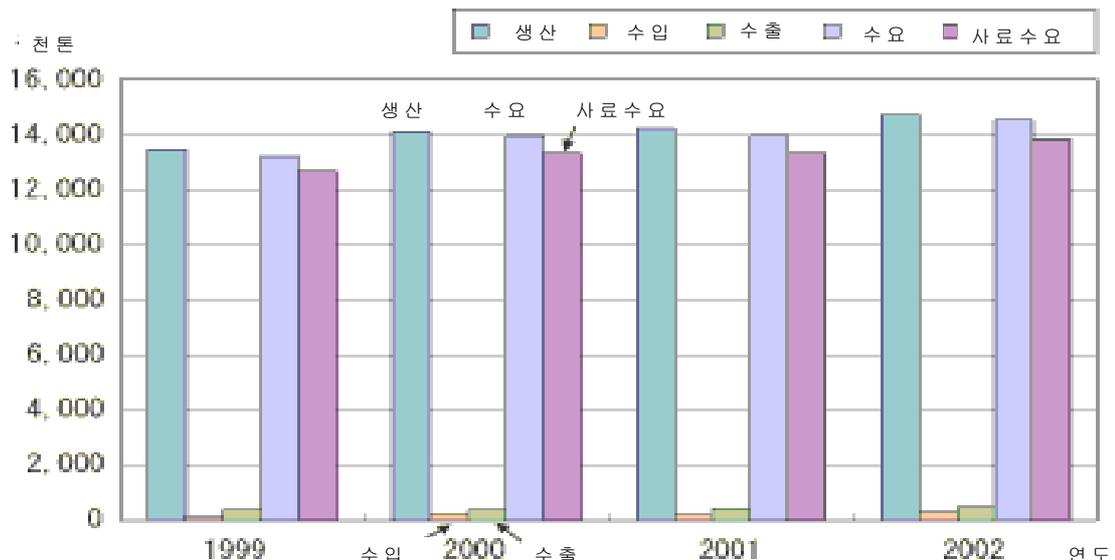
자료: FAO/STAT

3.3.2. 강류 등

쌀 정미는 소비지 또는 그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으며, 미강은 대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대량으로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 외에, 산화에 약하고, 장기 보관에도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태국 사료생산협회의 데이터에서는 유통사료의 구성 성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옥수수나 대두밀의 대체품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내국 유통이 주이기 때문에, 통계의 파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FAO 통계 데이터 상에서도 생산량은 단지 Brans로서, 미강도 파쇄미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미강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생산량은 1,400만톤을 넘으며, 약 반 정도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고 있어, 자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 주요 5개국의 강류 수요



자료: FAOSTAT

3.4. 카사바

생산면적은 290만 ha 전후이다. 생산량은 2002년까지는 4,000만톤 전후였지만, 2003년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증가하여 4,400만톤 정도 되었다.

수입은 거의 없고, 수출이 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수요는 해마다 증가 하고 있어, 2003년에는 4,000만톤 정도 된다. 사료 원료로는 베트남의 수요가 크고, 태국에서는 거의 없지만, 태국에서는 카사바를 원료로 타피오카를 생산하고 있어, 그 부산물을 pellet화 하여 사료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상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베트남의 사료용 사용량은 국내 수요의 7할을 넘는다.

그림 13 주요 5개국의 카사바 수확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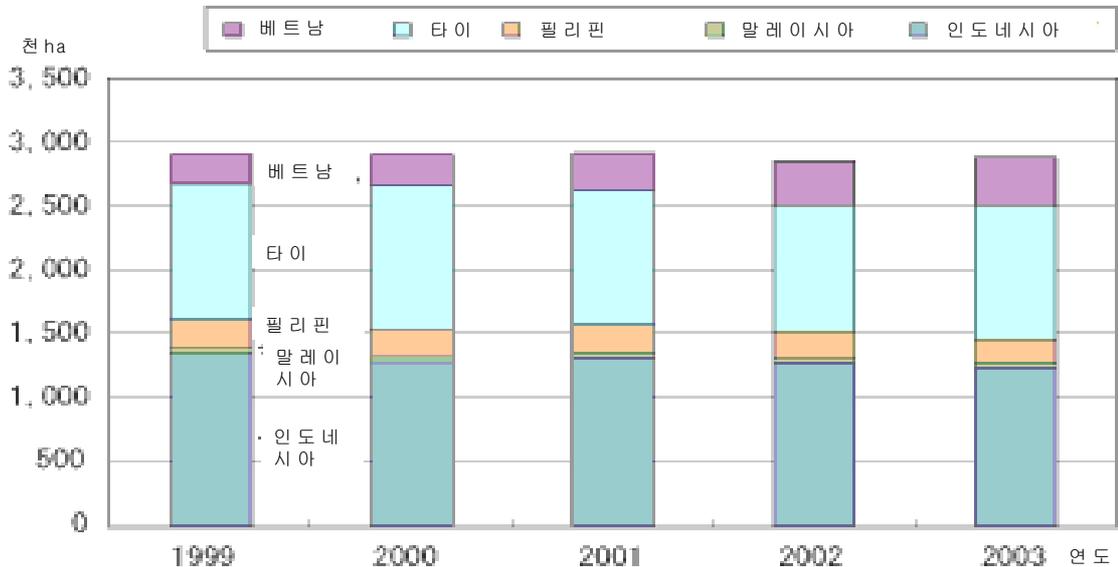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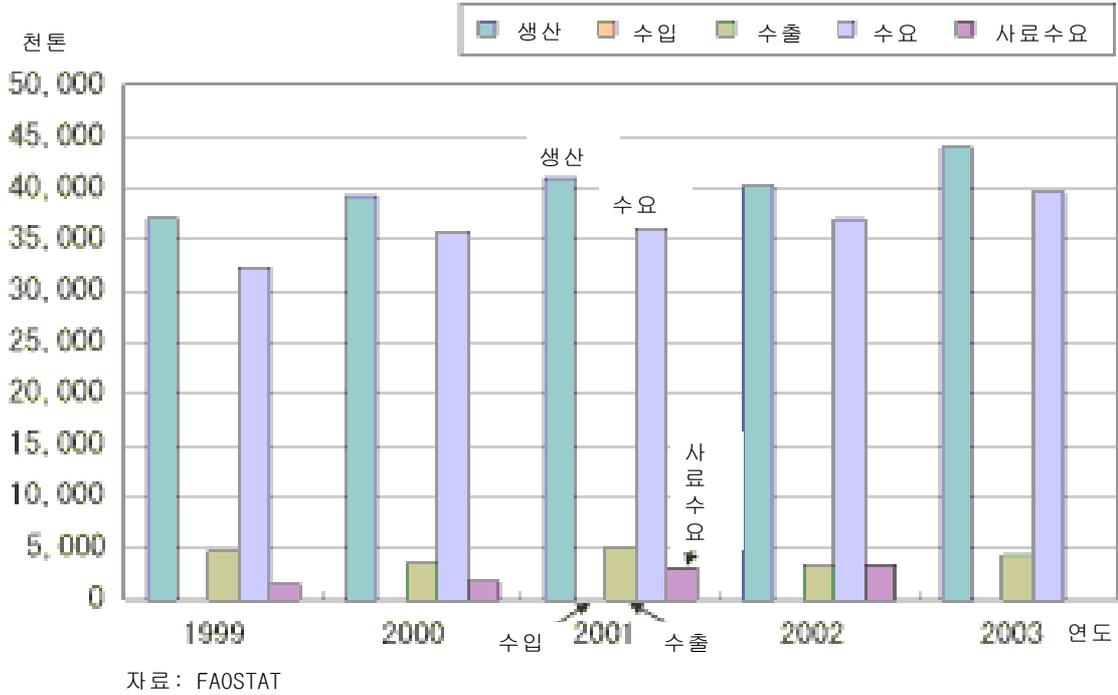


그림 14 주요 5개국의 카사바 수요



3.4. 사료원료 수입 : 옥수수는 중국에 의존

이상과 같이 각국은 식육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 원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급격한 수요의 증가에는, 기본적으로는 수입에 의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옥수수과 대두밀이 수입되고 있다. 수입 상대국 다른 수량을 보면, 옥수수는 거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대두 및 대두밀의 수입 상대국은, 대두는 미국이 주이지만, 대두밀은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 등 수입처가 분산되고 있다.

4. 국별 사료수급 개황

이제까지 5개국 전체에 대해 사료 원료를 둘러싼 상황을 보아 왔다. 다음

에는 각국 개별의 상황을 사료 공업과 함께 개관하고자 한다. 사료 생산 능력과 생산량은, 축산 이외의 수산 양식용을 합계한 것이다.

그림 14 주요 5개국의 대두 수입 상대국별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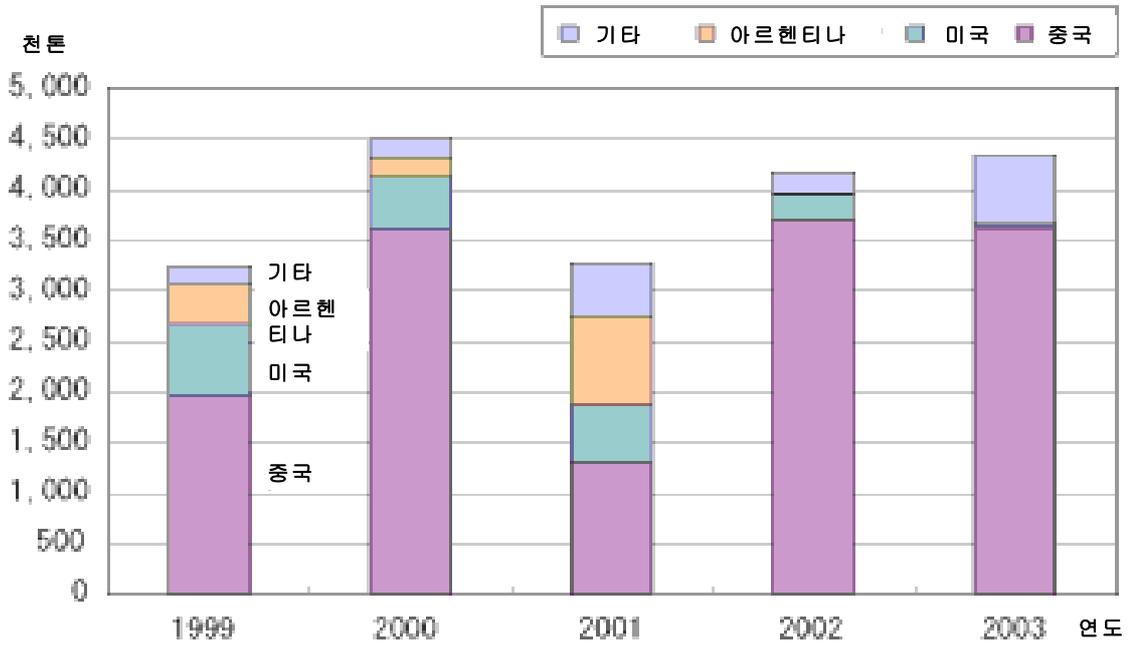


그림 15 주요 5개국의 옥수수의 수입 상대국별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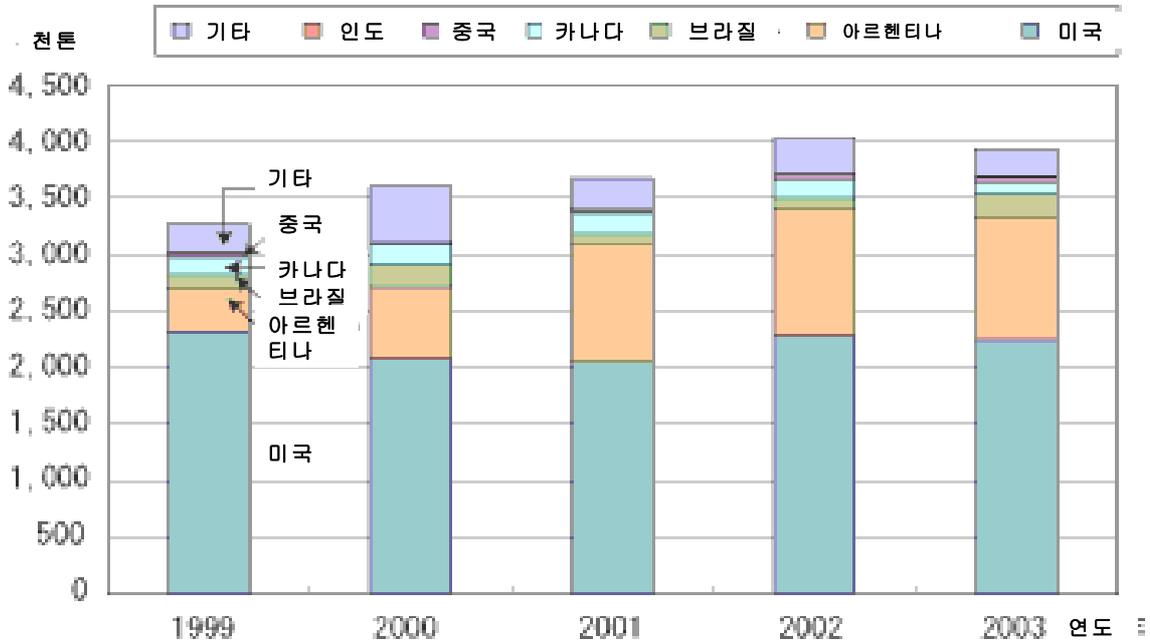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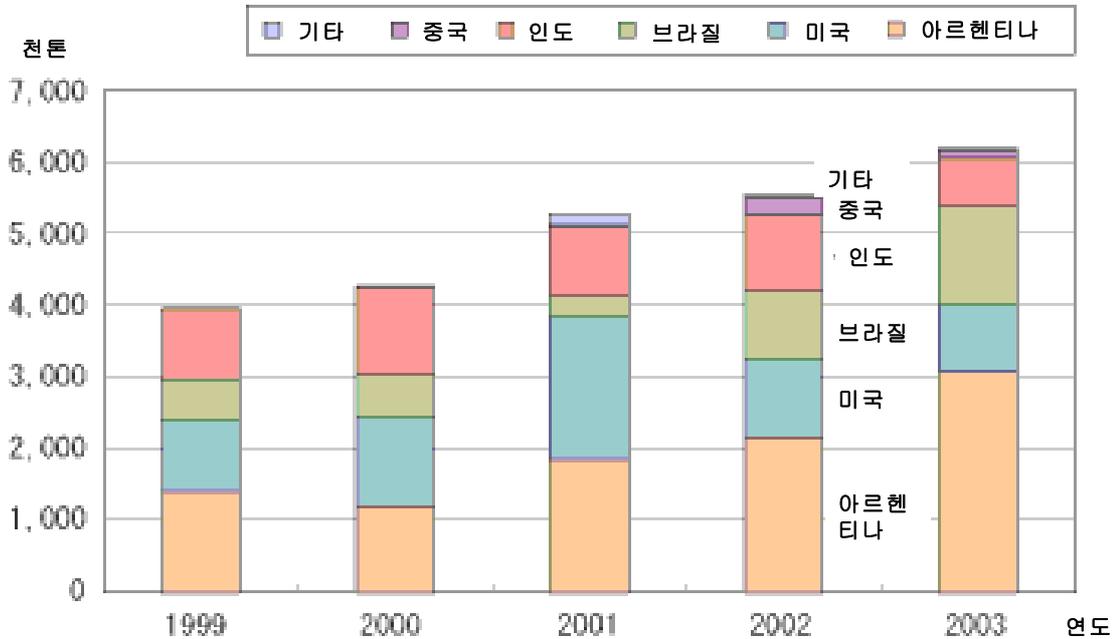


그림 15 주요 5개국의 대두밀 수입 상대국별 수량



4.1. 인도네시아

2억 명이 넘는 인구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제 4위로,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Java섬(국토 면적의 7%)에 인구의 60%가 집중되어 있다. 이슬람교도의 비율이 높아(인구의 87%), 식육 소비의 중심은 가금육이다. 인도네시아 사료협회(GPMT)에 의하면, 사료생산은 2003년 720만톤이었지만,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도 730만톤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된 사료의 대부분은 브로일러나 채란용 가금 등의 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료 옥수수는 국내에서도 생산되지만, 공급이 수확기인 2월부터 4월에 한정되어, 이외의 계절은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생산된 옥수수의 건조설비나 보관시설이 불충분하여, 보존 상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 등의 인프라도 불충분하여, 수송상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간 100만톤 이상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대두밀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상대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중국 중심의 옥수수의 수입과 비교하여 다변화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사료 기업 상위 10사는 <표 3>과 같다. 필두는 태국 자본의 체론포카관(CP)인도네시아이다. 이들 10사에서 인도네시아 기업에 의한 사료 생산량의 약 9할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4.2. 말레이시아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로, 식육 소비의 중심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가금육이다. 돼지는 1999년에 니파 바이러스에 의해 병사자가 발생하여 대량의 돼지가 처분되었고, 동시에 돼지고기 소비가 감퇴했지만, 그 후 생산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다. 가금육 수급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연간 약 440만수의 생닭을 싱가포르에 수출하고 있다.

표 3 주요 사료 기업(인도네시아)

기업명	모회사국적	공장수	생산능력 (천톤/월)	생산실적 (04년천톤)	자사경비조 달율 (%)
CP Indonesia	태국	4	200	1990	35
Japfa Comfeed	인도네시아	6	155	1320	10
Cheil Jedang	한국	2	60	366	0
Siarad	인도네시아	3	55	456	100
Wanekaye	인도네시아	2	50	402	85
Cargil	미국	4	25	240	50
Gold Cion	스위칠란드	5	25	228	0
sinta	인도네시아	1	15	168	0
Mahar Feed	인도네시아	1	12	120	0
AGT	인도네시아	1	10	60	0

자료: 주싱가폴 일본주재원사무소 조사

옥수수 수요에 대한 국내 생산의 비율은 2002년으로 불과 3% 정도여서, 수요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대두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어, 이를 원료로 대두밀이 생산되고 있지만, 대두밀 자체도 모두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사료기업 상위 10사는 <표 4>와 같다. 사료 관계자에 의하면, 2004년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400만톤이 넘고, 80% 이상이 가금용으로, 나머지는 돼지용 등이다. 상위 2사는 구미계의 기업이다. 이들 10사에서 말레이시아 기업에 의한 사료 생산량의 약 5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0사 중 6사가 integrator로써, 사내에 축산 또는 수산 양식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4.3. 필리핀

8,000만명을 넘는 인구를 가짐과 동시에 연율 2%의 인구증가를 계속하고 있어, 경제 안정이 계속되면, 식육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종교적인 제약이 없고, 아세안 중에서는 베트남에 이어 돼지 사육두수가 많다.

표 4 주요 사료 기업(말레이시아)

기업명	모회사국적	공장수	생산능력 (천톤/월)	생산실적 (04년천톤)	자사경비 조달율(%)
Gold Cion	스위칠란드	6	56	490	0
Cargil	미국	4	45	330	30
FFM	말레이시아	5	42	342	0
CP	태국	3	25	229	50
Sianmah Multifeed	말레이시아	1	25	204	20
USM	말레이시아	2	24	242	0
Gymtech Feedmill	말레이시아	1	20	192	35
MFC	미국	1	17	156	65
SHC	말레이시아	1	10	84	15
Feedmeal Malaysia	말레이시아	1	5	36	0

자료: 주싱가폴 일본주재원사무소 조사

옥수수 연간 440만톤 전후를 생산하고, 9할 이상을 자급하고 있지만, 수확 후 건조, 보관 및 수송에 소요되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수확량의 1할을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생산지가 북부와 남부로 갈라져 있지만, 북부는 태풍 등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기 쉽고, 남부는 소비지까지의 수송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수요의 일부를 수입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두 및 대두밀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필리핀의 사료 기업 상위 10사는 <표 5>와 같다. 2003년의 기업에 의한 사료의 생산량은 약 540만톤이지만, 그 중 약 5할을 상위 5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모두 integrator이다.

4.4. 태국

아세안 제국 중에서 특히 수출을 위한 전용 브로일러 생산이 번성하고, 2003년까지는 연간 30만톤 넘게 수출을 하여 왔다. 옥수수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출도 하고 있다.

표 5 주요 사료 기업(필리핀)

기업명	모회사국적	공장수	생산능력 (천톤/월)	생산실적 (04년천톤)	자사경비 조달율(%)
san Miguel Feed	필리핀	2	100	946	80
Swift Feed	호주	15	65	636	70
Pure Feed	필리핀	1	50	420	75
Universal Robina	필리핀	4	50	362	50
Vitarich	필리핀	2	27.5	318	25
Formost Farms	필리핀	2	22	124	100
GMC	필리핀	1	20	152	0
Tyson Agro Ventures	미국	4	15	130	100
Cheil Jedang Philipines	한국	1	12.5	114	0
Agribrands Philipines	미국	2	10	106	0

자료: 주싱가폴 일본주재원사무소 조사

단, 생산의 중심지인 북부 지방은 자주 한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확 면적은 거의 변함이 없지만, 생산량은 감소 경향이어서, 2003년에는 410만톤 정도 된다. 대두는 수요의 8할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대두 밀도 2003년에는 192만톤 수입하였다. 2004년에 발생한 가금 인플루엔자에 의해 태국의 가금육산업은 큰 영향을 받아, 사료 원료인 옥수수에 잉여가 발생하고, 수출량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한다.

태국은 쌀 수출국으로 연간 1,000만톤 전후를 수출해 왔지만, 2003년에는 840만톤으로 감소했다. 쌀 수요량의 약 9%가 사료로 이용된다. 카사바의 수확 면적은 약 백만ha 정도이다. 연간 1,600~1,800만톤 생성되고 있지만, 통계상 태국의 사료용 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에는 370만톤을 수출하였다.

태국의 사료 기업 상위 10사는 <표 6>과 같다. 사료 관계자에 의한 2004년의 기업에 의한 사료 생산 추정량은 약 1,000만톤으로 보고 있지만, 그

중 약 7할을 상위 10사가 생산 하고 있으며, 1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integrator 이다. 미국 자본 2사 외에 모두 태국 자본의 회사로, 그 중에서 제 1위의 CP그룹이 큰 생산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4.5. 베트남

최근 몇 년간 7%전후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하고 있어, 가금육 및 돼지고기도 생산과 수요 쌍방이 증가하고 있다. 사료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옥수수 수확 면적 및 생산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요의 9할을 자급하고 있다. 대두는 수확 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다소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대두밀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표 6 주요 사료 기업(태국)

기업명	모회사국적	공장수	생산능력 (천톤/월)	생산실적 (04년천톤)	자사경비조달율 (%)
CP Group	태국	16	440	3300	50
Batagra Agro Group	태국	6	125	1328	50
Lumthang Agri Products	태국	2	60	558	100
Krungthai Feedmill	태국	1	49	486	0
Sun Vally(Thai)	미국	1	45	384	100
Lee Feed Mill	태국	1	30	300	80
Sun Feed	태국	1	30	300	80
Cantaco	태국	1	25	280	80
Safa Farms	태국	2	40	264	100
Cargill Siam	미국	4	15	144	40

자료: 주싱가폴 일본주재원사무소 조사

베트남은 태국과 같이 쌀의 수출국이며, 수확 면적도 750만ha 전후로 2003년에는 2,700만톤을 넘는 생산이 이루어졌다. 그 일부를 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수요량의 2%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카사바 수확 면적과 생산량은 증가 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520만톤을 생산하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카사바를 사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 수요의 7할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아세안 제국 중에서도 돼지의 사육 두수가 많으며, 유통 사료의 약 5할이 양돈을 위한 사용이고, 가금 4할, 기타가 1할 정도이다.

베트남에서도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대량의 가금 살처분을 하였으며, 2004년의 가금수수는 1할 정도 감소된 반면, 돼지 두수는 5%정도 증가 하여, 사료 수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베트남의 사료 기업 상위 10사는 <표 7>과 같다. 2004년 기업에 의한 사료 생산량은 약 500만톤 정도인데, 그 중 약 5할을 상위 10사가 생산하고 있다. 이 중 5사가 integrator 이며, 사료의 자사 소비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다. 베트남 자본 외에, 태국, 프랑스, 미국, 대만, 한국 및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자본 투입이 있고, 그 중에서 태국 자본의 CP가 필두이다.

표 7 주요 사료 기업(베트남)

기업명	모회사국적	공장수	생산능력 (천톤/월)	생산실적 (04년천톤)	자사경비조달율 (%)
CP Vietnam Livestock	태국	3	100	840	30
Proconco	프랑스-베트남	3	50	552	20
Cargill Vietnam	미국	3	31	300	20
Long Chau	베트남	3	30	180	0
Lai Thieu	베트남	1	15	156	0
Chi-President Vietnam	대만	1	15	100	10
CJ Vina Agri	한국	1	11	90	0
Japfa Comfeed Vietnam	인도네시아	1	10	84	15
Catsco	베트남	1	7	66	-
Viet Phuong Feedmill	베트남	1	4	36	0

자료: 주싱가폴 일본주재원사무소 조사

5. 맺음말

경제성장이 계속하고 있는 아세안 제국에 있어서, 식육 등의 축산물 수요도 확대 경향이지만, 식육은 콜드 체인 미정비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 확대에 의해 공급되는 경향이 강하며, 앞에서 지적한 대로 결과적으로 사료 원료의 국내 생산을 확대할지 또는 수입에 의존하는지를 선택하게 된다.

베트남과 같이 사료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 가면서 수입도 증가시키는 나라도 있지만, 작물에 관해서, 수확 면적이 유지 또는 감소 경향에 있는 현상에 있어서는, 향후 개량된 품종 등의 채용으로, 경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입에 있어서는, 옥수수는 거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은 아세안 제국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 장래는 공업 원재료 등과 마찬가지로, 종래와는 빈대로 사료 원료의 수입국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처를 변경하려 하여도 중국의 수입은 단기적으로는 국제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아세안측으로서는 옥수수 등을 구입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 절상이나 원유 가격 상승 등 현재의 상황은 사료 원료 수입에 보다 곤란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아세안의 사료 원료 확보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게 될 것과 생각된다.

현재, 아세안 각국은 각국 밖의 국가들과 경제제휴협정(EPA)을 추진하는 것 외에, 역내에서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에 의해 역내 관세를 장

래적으로 철폐하는 구상을 진행시키는 등, 경제적인 제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틀이 해외로부터의 투자 확대와 회원국가의 경제 일단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프라 미정비 때문에, 모처럼 생산되어도 효율적인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사료 원료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수반된 인프라의 정비가 진전되어 아세안 역내에서의 사료 원료의 수송의 활발화 등에 의해 지역 전체로서의 축산 발전이 기대된다.

자료: 日本農畜産振興機構, 「畜産の情報(海外編)」, 2005년 9월호
(허 덕, huhduk@krei.re.kr 02-3299-42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